

I. 서 론

1999년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소년범죄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980년도에는 1994년도에 비해 청소년범죄가 약 48.9%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증가율(약 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비행까지 고려해 볼 때 청소년범죄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박윤창, 2000).

청소년범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조직폭력범의 증가로 상해와 폭행 등 인신에 대한 것 이외에 마음 내키는 데로 차량, 건물, 공공기구 등을 손상시키는 범죄의 증가이다. 둘째, 성범죄의 증가이다. 즉 성폭행이나 추행, 강간 및 윤간 등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가정파괴범과 같은 범죄의 상당수를 청소년범죄행동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집단비행의 증가로 단독범죄보다는 집단으로 행하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친우집단끼리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넷째, 중류이상 가정출신 범죄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 내지 결핍이 청소년범죄행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섯째, 알코올, 부탄가스, 본드 등 약품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질관련 범죄는 이후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이유 없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즉 특정한 동기나 이유 없이 그냥, 또는 욕하는 성질에 의한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우발적인 양상으로 청소년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려는 동기 없이 충동적으로 범죄행동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백서 통계, 1998).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연령 9세~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1,86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5.6%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중 청소년범죄행동이 151,383명으로 전체범죄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1에는 82,207명, 1992에는 86,941명, 1993에는 103,655명, 1994년에는 108,721, 1995에는 123,372명, 1996에는 136,323명, 그리고 1997에는 153,380으로 1997년도를 제외한다면 청소년범죄행동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범죄유형도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살인의 경우 6.9%, 강도 49.6%, 강간 10.2%, 방화, 6.8%, 절도 56.1%, 그리고 폭력 및 폭행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도 15세 이하의 범죄는 1994년 26.3%에서 1998년 23.5%로 낮아진 반면, 15-20세의 범죄는 1994년 39.2%에서 1998년 39.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범죄연령과 관련하여 Stattin과 Magnusson(1991)은 709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14세 이하, 15~20세, 그리고 20~29세의 세 가지 연령대를 중심으로 범죄유형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은 11.4%이며,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인 아동기 때부터 비행해 온 경우가 7.8%임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범죄만연율(prevalence)과 발생비율(incidence rate)이 청소년기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일어나며, 전체 검거자 수도 17세에 정점을 이루다가 초기 성인기에 급격히 하락한다는 연구결과(Blumstein & Cohen, 1987)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소년범죄행동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이론과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을 다룬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세진, 2000; 김장대; 1998; 이동원, 1997; 이우영, 2000에서 재인용).

첫째, J. Hagan의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을 꼽을 수 있다. 이 이론은 사회와 가정에서 권력과 통제가 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

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권력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따른 통제가 부재하다면, 이때 통제 부재현상이 청소년들을 이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권력-통제의 관계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부모 중에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아들과 딸의 비행욕구에 각각 달리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권력관계가 균형적인 가정에서는 보수적이며 진보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은 모험심이 가부장제 하에서 보다 강한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특성화된 성역할을 덜 수용하기 때문에 비행률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모권적 가족구조, 즉 모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편모의 가정 하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남성적 성향을, 남자 청소년은 여성적 성향을 많이 지니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이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E. H. Sutherland가 제시하는 차별적 접촉이론 또는 차별적 관계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사회화 과정의 차원에서 한 개인이 이탈하게 되는 원인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이탈 행동은 학습된다는 기본명제를 내세우고, 이를 학습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Sutherland가 주장하기를 청소년은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문화와 비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상위문화의 상반된 문화적 역동과 대립 속에 살고 있으며, 비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문화유형보다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문화와 빈번히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차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비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E. M. 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사회가 개인의 행위를 이탈행위로 낙인을 찍는 과정과 그 낙인이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Lemert는 청소년의 비행을 일차적 이탈과 이차적 이탈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일차적 이탈은 청소년이 순간적으로 규범을 위반할 수 있지만 외부에 그 사실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반응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탈선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차적 일탈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평가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행위자를 탈선자로 낙인찍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로부터 이차적 일탈로 변화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청소년의 경력비행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가정, 학교 및 친구와 관련된 요인들을 청소년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사회통제이론을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유대가 약한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회의 적응력이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Hirschi는 이러한 사회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본 가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탈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회는 인간과 반대로 반일탈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일탈 가능성에 항상 놓여있게 됨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라고 봄으로써 사회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일탈의 성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특히 사회유대의 주요지표로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융집력이 높을수록 비행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았고, 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사회의 적응력을 상실할 때 비행이 저질러진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은 비행의 보편성과 사회유대의 약화에 비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며 사회적응력을 길러주는 학교, 친구, 가정 등이 청소년비행의 주요한 원인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J. Braithwaite의 재통합수치이론은 시계열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범죄참여와 범죄지속으로 구분하여 그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범죄참여, 즉 정상적인 사람이 처

음 범죄를 저지르는데 관련된 요인과 범죄지속, 범죄경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지속하는 데에 관련된 요인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청소년이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말미암아 최초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이 청소년이 일단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사회적 유대의 회복만으로는 사회 환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Braithwaite는 범죄참여와 범죄행위의 시제열적 발달과정을 함께 다루면서 청소년들의 가족, 친구, 학교적응, 사회경험 등과 같은 것들도 비행행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억제이론과 낙인이론을 동시에 다루면서 수치를 청소년비행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난 후에 이들을 일상적인 생활에 재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르는 사회적 반응인 재통합적 수치(reintegrating shaming)와 청소년비행자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고 이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반응인 낙인적 수치(stigmatizing shaming)로 나누었다. 또 재사회화 적응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성과 공동체 의식의 여부가 요구되는데, 상호의존성은 애착과 관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비행률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도덕적 통합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비행행위를 더욱 자제할 거라는 것이다.

여섯째, Durkheim에 의해 처음 소개된 아노미라는 개념을 수정하여 그것으로 일탈행위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사람은 R. K. Merton이다. R. K. Merton의 아노미(Anomie)이론은 아노미, 즉 규범해체 및 무규범 상태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구조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적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불가피하고, 이와 같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규범체계의 와해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오늘날 기술문명의 발달은 개인 또는 전체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지만 사회의 복잡화·변잡화, 환경의 오

염 등을 초래하였고, 특히 자동화에 수반된 사회적 격변은 인간 소외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문명의 역기능으로서 나타난 인간 소외현상은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수단이 괴리되어 아노미, 즉 무규범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청소년은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Richard Cloware와 L. E. Ohine에 의해 주장된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은 어떤 사람이 범법행위를 할 때는 비행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을 때에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욕구불만의 사실만으로는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비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구불만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욕구를 불법적으로 해소시키는 기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C. R. Show와 H. D. McKay가 처음 체계적으로 논술한 문화전달이론(Cultural Transmission Theory), W. C. Reckless의 자기관념이론, Albert K. Cohen에 의하여 최초로 주장된 비행하위문화이론 등 많은 비행이론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범죄행동을 원인을 크게 보면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총화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처한 환경은 크게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개인적 특성은 인종, 유전, 신체적인 조건,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총화가 범죄행동을 유발하는 핵심요인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예측일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적 요인이든 개인적 요인이든 또는 이 둘 모두의 요인이든,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매우 모호하고, 또 어느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과 결과는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전략 및 심리학적 재활프로그램의 구성 안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동일한 환경에

처했을 때 범행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특성, 즉 범죄행동에 대한 성격과 개인차의 특성이 환경적 요인에 앞서 크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범죄행동에 대한 연구는 성격 및 개인차에 큰 역점을 두어야 하고(Eysenck, 1996; 이현수, 2001), 신경증적 경향성, 외-내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그리고 양심성 등과 같은 성격특질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성격 및 개인차의 기본 단위인 빅파이브모델(The Big Five Model) 중 Costa와 McCrae(1992)에 의해서 개발된 NEO-FII(NEO Personality Inventory)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빅파이브요인은 학자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McCrae와 Costa(1985)가 제안한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개방성, 원만성, 그리고 양심성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빅파이브요인 중에서 신경증적 경향성과 외향성은 하나의 성격특질차원으로서 그 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분석되었고, 범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서 Eysenck의 정신병적 경향성과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다.

NEO 성격모델에 따르면,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차원은 정서적 적응과 불안정성의 만성적 수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차원이 높은 개인은 불안이 높고, 근심걱정이 많으며, 그리고 비현실적인 생각과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감내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외향성(Extroversion; E) 차원은 대인관계의 선호가 높고, 활동수준이 많으며, 충동성이 높고, 자극화 욕구 및 센세이션시이킹(sensation seeking) 수준이 높고, 특히 처벌보다는 보상단서에 매우 민감한 것이 특징이다. 경험에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차원은 경험에 대한 능동적인 추구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 차원이 높을수록 도전심, 호기심, 상상력,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새로운 생각과 비관습적인 가치 및 신념을 받아들이고 감정과 정서적 반응이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만성(Agreeableness; A)

차원은 동정심으로부터 적대감에 이르는 연속체 상에서 사고, 감정 및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대인상호간의 지향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차원이 낮을수록 냉소적이고, 거칠고, 사납고, 의심이 많고, 남을 조정하려 들고, 그리고 비협조적이며 냉혹한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양심성(Conscientiousness; C) 차원은 일종의 성취에 대한 의지로서 이 차원이 낮을수록 개인의 목표가 없고, 믿을 수 없고, 부주의하고, 느슨하고, 그리고 의지가 약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는 크게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큰 생활주변의 사건(life big event)을 뜻하는 거시적 스트레스와 사소한 사건의 미시적 스트레스로 구분된다. 특히 사사로운 사건 중에서 사소하며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hassle과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인 uplift가 있다. hassle은 악성 스트레스 또는 역기능적 스트레스(distress)라고 하며 uplift를 양성 스트레스 또는 순기능적 스트레스(eustress)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동일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성을 뜻한다. 즉 한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여부, 예측가능성, 그리고 스트레스 평가태도, 극복책략, 학습과정, 그리고 성격 등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 대처방식과 방어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처방식이란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불편하고 긴장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반응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 지향적인 공격적 행동과 표현방식이다. 이는 외부적인 대상이나 조건을 변경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본인 자신의 태도 수준이나 포부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타협적인 반응으로서 갈등과 좌절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철회 또는 회피로 이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렵고, 또 공격적인 행동도 비생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문제장면으로부터의 회피행동인 철회를 함으로써 문제의 직면을 거부하는 비적응적 회피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어적 대처란 일종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실제적인 욕망과 목표행동을 속이면서 좌절 및 갈등에 반응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및 불안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며, 의도적이 아닌 하나의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불편하고 긴장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직접적인 대처방식, 특히 공격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표현방식을 통해 청소년범죄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반응특징은 부적응적일 수밖에 없다. 발표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과 고민 때문에 가출이나 폭력 및 자해행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과 청소년범죄행동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 개인의 성격특질 및 개인차를 탕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업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물론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 중 어떤 이들은 적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범죄행동을 감각추구동기는 물론 발달경로와 관련해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Patterson, DeBarshe와 Ramsey(1989)는 청소년범죄행동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발달경로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 이전에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early starter)와 청소년기에 와서 비행을 시

작하는 경우(late starter)는 그 비행경로가 서로 달라서 같은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만성적인 범죄자가 되기 쉬운 유형은 이른 시작자이며, 두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 연령은 대략 15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도 성격특질차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각추구동기나 발달경로양상은 한 개인의 성격특질 및 개인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비행이 17세 정도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선행 외국 연구결과들은 이를 감각추구동기는 물론 자극추구동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Stattin & Magnusson, 1991). 즉 자극추구동기가 높은 사람은 외향적이며,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리고 불안수준이 낮다고 한다. 또한 약물사용(DiGiuseppe & McInerney, 1991), 음주행동, 성적 충동, 그리고 범죄 등과 같은 많은 문제행동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최적 자극수준(optimal level of stimulation)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Zukerman, Eysenck, & Eysenck, 1985; 박운창, 이미경, 윤진 1995).

Newcomb와 McGee(1991)의 연구도 자극추구동기의 각 하위척도가 모든 유형의 비행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Kaplan과 Johnson 및 Bailery(1986)은 자아개념과 비행행동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Eysenck와 Eysenck(1985)는 범죄성 성격특질(criminal personality trait)를 제안하면서 청소년비행을 성격특질차원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범죄행동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차를 기반으로 한 성격특질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하는 것으로 청소년범죄행동이 사회적 구조의 산물보다는 유전-생물학적 요인인 성격특질의 산물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행동은 개인차를 기반으로 한 성격특질차원의 기저는 물론 환경에서 오는 자극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반응스타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반응스타일 역시 한 개인의 성격특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범죄행동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을 주로 개인 내적 측면, 즉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유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 중 어떤 청소년들은 범죄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들은 범죄행동을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개인의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청소년범죄행동간의 관계를 일정 변량 이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청소년범죄행동의 심리적 원인을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범죄행동의 예방은 물론 청소년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몇몇 선행 연구결과, 특히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비행에 취약한 “청소년범죄 특이소질-스트레스 모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주교도소 내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조사하고, (2) 성격특질검사(NEO-FFI) 및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3) 범죄유형별에 따른 성격특질은 물론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청소년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재활프로그램의 구성방안내용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범죄청소년에 대해 장·단기 격리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송천정보통신학교에 수감 중인 남자 비행 청소년 171명과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남자 청소년 175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7월부터 동년 8월까지 실시되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16.75(표준편차 1.62)세이고, 일반청소년은 16.38(표준편차 .97)세였다.

송천정보통신학교는 구 전주소년원으로서 송천중학교로 개명된 후 최근 특성화중학교 단기과정으로 바뀌었다. 이곳에 수용된 학생들은 주로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되어 있으며, 6개월의 단기처우생이 주를 차지하고 일부 장기처우생과 분류심사를 위해 대기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로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영어회화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었다.

2. 조사도구

1) 인구통계학적 기초자료 수집

비행청소년에게는 인구통계학적 기초 자료 질문지를 통하여 성별과 연령, 학력과 가족관계, 경제수준, 처우과정, 비행명, 소년원 입원경력, 최초 비행연령에 대하여 물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생존 여부와 경제력 수준에 대한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2) NEO-Five Factor 기질검사(NEO-FFI)

다차원적 성격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질검사지(NEO-FFI; Costa & McCrae, 1992)를 실시하였다. NEO-FFI는 사람들의 개인간 또는 내적 정신기능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처음 개발된 자기보고점사로(Costa & McCrae, 1985), 다섯 가지의 하위 성격차원을 두고 있다. 즉 (1)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U)-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성, (2) 외향성(Extroversion; ET) 차원 - 비교적 내성적이고 진지하거나 또는 사교적이며 진취적 기상에 머물고 있는 개인의 성향, (3) 개방성(Openness; OP) 차원 -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능력, (4) 원만성(Agreeableness; AB) 차원 -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개인간에 온정을 보여주는 능력, (5) 양심성(Conscientiousness; CO) 차원 - 자신과 타인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 차원은 요인구조, 그리고 신뢰도 및 타당도의 측면에서 견고한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osta, 1991; McCrae, 1991; McCrae & Costa, 1987; 이인혜, 1997). 각 척도는 0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질문지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질문지(Stress Coping Strategy Inventory)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대처반응력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것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구조와 신뢰도 및 타당도에서 견고한 심리측정학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8개의 하위척도를 두고 있다. 각 문항은 0에서 4점까지 5점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최종 분석하였다. 8개의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1) 직면적 대처 - 스트레스원 자체

를 변화시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2) 계획적인 문제해결 -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든지 과거경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 (3) 거리 두기 - 스트레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행동, (4) 자기조절 - 자신의 감정을 남이 알아차리지 않게 다스리는 행동, (5) 사회적 지지추구 - 다른 사람의 동정과 이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행동, (6) 책임감수 - 스트레스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드려 반성하거나, 보상받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다음 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다짐하는 행동, (7) 회피/도피 - 스트레스원에 직접 대처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행동, (8) 긍정적 재평가 - 스트레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드리려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 중 직면적 대처의 내적일치도는 .5288, 계획적인 문제해결은 .6804, 거리두기는 .7432, 자기조절은 .6302, 사회적 지지추구는 .6984, 책임감수는 .7525, 회피/도피는 .6036,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는 .5610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먼저 비행청소년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주 소재 송천정보통신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학교 재학생에게 인구통계학적 기초자료 질문지와 NEO-Five Factor 기질검사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질문지를 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과 연령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수원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NEO-Five Factor 기질검사와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질문지를 주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령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학력은 일반청소년이 다소 높은 편으로 표집 될 수밖에 없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Chronbach α 계수를 계산하였고, 척도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리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그리고 비행청소년 중에서 신체적 비행자와 비신체적 비행자 간의 차이는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방법

1. 일반적인 특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일반청소년 학생은 175명으로 전체의 50.6%였고, 비행청소년은 171명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일반청소년학생과 비행청소년간의 조사대상자 수

	빈도수	백분율	누가 백분율
일반학생	175	50.6	50.6
비행	171	49.4	100.0
Total	346	100.0	

2) 비행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측면

비행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인 면 중에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 중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92명으로 전체의 55.8%로서 많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구조적인 결손가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손가정인 경우도 44.2%를 차지했는데, 이를 가족관계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비행청소년의 가족관계

	빈도수	백분율	누가백분율
부모생존	92	55.8	55.8
모생존	34	20.6	76.4
부생존	28	16.9	93.3
계모	4	2.5	95.8
계부	2	1.2	97.0
고아	5	3.0	100.0
Total	165	100.0	

※ 6명의 자료는 누락됨

3) 비행청소년의 경제수준

비행청소년의 경제수준은 보면, 상에 속한다고 보고한 학생은 전혀 없었다. 대부분은 가족의 경제수준이 중이거나 중하하고 보고하였는데 중상에서 중하까지 중산층에 속한다고 보고한 학생은 79.8%이었다. 한편 비행청소년 중 생활보호 대상도 20.2%에 달하고 있었다. 자료는 아래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비행청소년의 경제수준

	빈도수	백분률	누가 백분률
중상	13	8.0	8.0
중	63	38.7	46.6
중하	54	33.1	79.8
생활보호대상	33	20.2	100.0
Total	163	100.0	

※ 8명의 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4) 처우과정

처우과정에 있어서 반 이상의 학생이 단기처우를 받고 있었고, 중기 및 일반장기 학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을 장기간 사회와 격려시키기보다는 단기간 수용하면서 교정 및 특성화 교육을 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현재의 교정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처우과정

	빈도수	백분률	누가 백분률
단기	87	51.2	51.2
중기	3	1.8	52.9
일반장기	63	37.1	90.0
특수장기	17	10.0	100.0
Total	170	100.0	

※ 1명의 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5) 청소년 비행 분류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청소년비행의 분류

	빈도	백분율	누가백분율
무응답	5	2.9	2.9
성폭력	5	2.9	5.8
강도상해	9	5.3	11.1
공갈	1	.6	11.7
공무집행	2	1.2	12.9
기소유예	1	.6	13.5
도로교통	4	2.4	15.9
미성년자	1	.6	16.5
보호관찰위반	20	11.7	28.2
유죄화학	1	.6	28.7
절도	34	19.9	48.5
주거침입	1	.6	49.1
특수절도	41	24.0	73.1
폭력	44	25.7	98.8
학교폭력	2	1.2	100.0
Total	171	100.0	

이 중 보호관찰 위반과 같은 것은 청소년비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년원생에게 소년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질문하자 일부 청소년은 비행이 아닌 입원의 직접적인 이유로서 보호관찰 위반을 지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이 보고한 것을 그대로 기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분석에서 신체형과 비신체형을 비교할 때에는 이들의 비행을 학교측에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5>를 볼 때, 전체적으로 절도와 폭력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최초비행 연령과 소년원 입원 경력

비행청소년의 최초 비행연령은 14.59세이며, 최소연령은 11세였고, 최고연령은 18세로 촉법소년(12세에서 14세까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단계에서 이미 최초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한편 학생들의 입원경력은 현재 입원까지 포함하여 1.29회 입원하였으며, 최소 1회에서 4회까지 입원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2회 이상 입원이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비행으로 입원한 소년이 전체의 1/4 이상이었다.

2. 성격특질 비교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질을 측정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향성($t(344)=2.223$, $p<.05$)과 원만성($t(344)=2.38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외향성은 일반학생이 $29.24(\pm 7.21)$ 이고 비행소년은 $27.59(\pm 5.89)$ 였으며, 원만성은 일반학생이 $27.55(\pm 5.46)$ 이고 비행소년은 $26.40(\pm 5.04)$ 였다. 그러나 신경증적 경향성($t(344)=1.100$, ns.), 개방성($t(344)=.075$, ns.), 그리고 양심성($t(344)=1.870$, $p=.062$)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더욱 외향적이고 온정적이며, 자기 주장적이며, 즐거움이나 행복, 사랑 등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롭고 솔직한 경향이 있으며, 이타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 집단간에 신경증적 경향성이나 개방

성, 그리고 양심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부정 감정이나 여러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심미성, 그리고 유능성이나 신중성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심성에서 유의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다음 연구에서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III-6> 일반청소년학생과 비행청소년간의 성격특질 차이 검증

	일반학생(n=175)	비행학생(n=171)	t	p
신경증적 경향성	25.869±7.210	25.012±7.276	1.100	.272
외-내향성	29.211±7.212	27.637±5.875	2.223	.027
개방성	25.531±5.235	25.573±5.076	-0.075	.940
원만성	27.634±5.468	26.298±4.955	2.380	.018
양심성	26.263±7.301	27.643±6.386	-1.870	.062

한편 비행소년에 있어서 비행과 관련된 행동과 성격특질간의 상관을 보면 특이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비행을 처음 시작한 나이나 입원경력, 그리고 장단기 여부 등과 성격특징은 상관이 없었다.

<표 III-7> 처우과정, 비행연령, 입원경력 등과 성격특질간의 상관

	NU	ET	OP	AB	CO
처우과정	-.033	.062	-.098	.019	.079
첫 비행나이	.023	.052	.031	.026	.110
입원경력	.022	.006	-.038	-.012	-.036

아래의 <표 III-8>은 비행유형을 크게 신체형과 비신체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성격특질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신체형은 폭력이나 강도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이고, 비신체형은 절도나 차량 절도 등 재산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신체형과 비신체

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외향성($t(166)=2.236$, $p<.05$)과 양심성($t(166)=1.976$, $p<.05$)이었다. 즉, 외향성에 있어서 신체형 비행을 한 원생(29.000 ± 5.947)이 비신체형 비행을 한 원생(26.906 ± 5.770)보다 외향적이었다. 이는 신체형 비행인 사람들의 활동성이 높음과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양심성에 있어서도 신체형 비행을 한 원생(28.934 ± 6.618)이 비신체형 비행을 한 원생(26.916 ± 6.223)보다 더 양심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신체형 비행의 경우가 비신체형 비행보다 비행의 결과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신체형 비행을 한 청소년이 더욱 더 불안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다른 성격특질변인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t(166)=1.400$, $p=.163$), 개방성($t(166)=-0.039$, $p=.969$), 그리고 원만성($t(166)=-1.668$, $p<.097$)은 비행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III-8> 비행유형에 따른 성격특질 차이검증

	신체형(n=61)	비신체형(n=107)	t	p
신경증적 경향성	25.984±9.364	24.346±5.802	1.400	.163
외-내향성	29.000±5.947	26.906±5.770	2.236	.027
개방성	25.689±4.853	25.720±5.026	-0.039	.969
원만성	25.557±5.274	26.869±4.679	-1.668	.097
양심성	28.934±6.618	26.916±6.223	1.976	.050

비행청소년 중 재비행자와 첫 비행으로 처음 입원한 원생간의 성격특질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III-9>이다. <표 III-9>를 보면 모든 성격특질에 있어서 첫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경력이 있는 비행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9> 첫 비행자와 재비행자간의 성격특질 차이검증

	첫 비행학생(n=122)	재비행학생(n=49)	t	p
신경중적 경향성	24.877±7.721	25.347±6.088	-.381	.704
외-내향성	27.820±5.911	27.184±5.819	.639	.524
개방성	25.934±5.189	24.674±4.714	1.474	.142
원만성	26.230±4.986	26.470±4.925	-.285	.776
양심성	27.902±6.282	27.000±6.662	.834	.902

3. 스트레스 대처반응 스타일 -분석

<표 III-10>은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긍정적 재평가뿐이었다($t(344)=2.347$, $p<.05$). 이밖에 직면적 대처($t(344)=-.261$, ns.)와 계획적 문제해결($t(344)=1.096$, ns.), 거리두기($t(344)=.077$, ns.)와 자기조절($t(344)=.031$, ns.), 사회적 지지추구($t(344)=1.390$, ns.)와 책임감소($t(344)=.232$, ns.), 그리고 회피/도피($t(344)=.592$, ns.)에 있어서는 양 집단의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비행청소년($1.263\pm.700$)이 일반청소년($1.450\pm.774$)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를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10> 일반청소년학생과 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차이 검증

	일반청소년 (n=175)	비행청소년 (n=171)	t	p
직면적 대처	1.446±.554	1.461±.521	-.261	.794
계획적 문제해결	1.569±.632	1.498±.570	1.096	.274
거리두기	1.450±.544	1.446±.523	.077	.939
자기조절	1.505±.426	1.503±.508	.031	.976
사회적 지지추구	1.669±.685	1.568±.655	1.390	.166
책임감소	1.441±.617	1.426±.585	.232	.816
회피/도피	1.443±.469	1.414±.458	.592	.555
긍정적 재평가	1.450±.774	1.263±.700	2.347	.019

한편 처우과정과 첫 비행나이, 그리고 입원경력과 스트레스 대처반응 스타일간의 상관관계는 <표 III-1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첫 비행나이와 직면적 대처간($r=-.164$, $p<.05$)과 책임감소($r=-.157$, $p<.05$)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입원경력이나 처우과정 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응은 없었다. 즉, 첫 비행연령이 어릴수록 직면적 대처를 더 많이 하고 책임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의 크기가 .20보다 작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III-11> 처우과정, 첫 비행연령, 입원경력과
스트레스대처반응스타일간의 상관**

	직면	거리	통제	지지	책임	회피	계획	재평가
처우과정	.084	.097	-.031	.063	.005	.019	.019	.134
첫 비행나이	-.164	-.098	.036	-.083	-.157	-.054	-.021	-.070
입원경력	-.063	-.038	-.025	-.016	.005	-.038	-.009	.063

<표 III-12>는 신체형 비행과 비신체형 비행을 범한 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신체형 비행과 비신체형 비행자 간에 스트레스 대처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전혀 없었다.

<표 III-12> 비행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 검증

	신체형(n=61)	비신체형(n=107)	t	p
직면적 대처	1.538±.493	1.411±.538	1.510	.133
계획적 문제해결	1.515±.509	1.477±.602	.417	.678
거리두기	1.439±.488	1.433±.541	.071	.943
자기조절	1.508±.462	1.483±.529	.312	.755
사회적 지지추구	1.518±.566	1.568±.685	-.485	.628
책임감소	1.363±.481	1.452±.640	-.937	.350
회피/도피	1.410±.456	1.402±.458	.109	.914
긍정적 재평가	1.175±.628	1.296±.733	-1.083	.280

<표 III-13>은 첫 비행청소년과 재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표 III-13> 첫 비행자와 재비행자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 차이 검증

	첫 비행(n=122)	재비행(n=49)	t	p
직면적 대처	1.490±.533	1.388±.487	1.164	.246
계획적 문제해결	1.516±.568	1.453±.577	.656	.512
거리두기	1.462±.524	1.406±.523	.631	.529
자기조절	1.510±.515	1.485±.496	.287	.774
사회적 지지추구	1.585±.632	1.527±.714	.529	.598
책임감소	1.441±.565	1.388±.637	.540	.590
회피/도피	1.415±.463	1.411±.449	.055	.956
긍정적 재평가	1.243±.660	1.313±.798	-.588	.557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격특질 및 스트레스 대처반응과 범죄행동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송천정보통신학교에 수감 중인 남자 비행청소년 171명과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남자 청소년 17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타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인 일반적인 특징분석, 성격특질차원의 비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비교분석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특징 분석을 볼 때 비행청소년의 경우 구조적인 결손가정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 어머니가 없는 경우, 계모, 계부, 그리고 고아 등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도 전체 4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결손가정, 특히 아버지 없이 자란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부모의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 자연히 경제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 상에 속한다고 보고한 학생은 전혀 없었다. 부모 모두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행청소년의 경제수준은 주로 중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도 부모의 경제수준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중상에서 중하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이 총 33명으로 전체 20.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부모의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손가정의 유무, 특히 경제력이 낮으면서 결손가정, 특히 아버지 없이 자란 청소년들의 비행가능성이 높으리라는 예측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내적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했던 비행청소년들의 처우과정은 단기처우가 반 이상이었고, 중기 및 일반장기 학생이 전체의 90%인데 반해 특수장기는 17명으로 10%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단기간 수용하면서 교정 및 특성화 교육을 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현재의 교정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되어 한 개인의 환경박탈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성격에 부분적 왜곡이 오고, 그 왜곡된 성격이 나중에는 범죄로 인한 왜곡 결과인지, 아니면 범죄 이전의 왜곡 소인이었는지를 밝히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비교적 사회와 격리된 시간이 짧았고, 환경적 박탈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격특질과 비행결과간에 인과관계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 측면이 되었다.

청소년비행을 범죄별로 분석했을 때 보호관찰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비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면접을 통해 질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절도와 폭력이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원인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여기에는 특수절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 강도 상해 및 성폭력이 다음으로 높았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 이를 더욱 세분하여 신체형과 비신체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강도를 범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폭력이나 강도에 비해 성격특질의 측면에서 더욱 외향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자료는 비행자들의 비행원인을 학교측으로부터 직접 얻은 것을 분석한 것인데, 신체형 비행인 사람들의 활동성이 높음과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행연령도 최초 비행평균연령이 15.59세였고, 최소 연령은 11세였으며 최고 연령은 18세로 촉법소년 단계에서 이미 최초 비행을 저지른 경우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2회 이상 재소된 경우도 28.7%를 차지하고 있어

재비행으로 다시 오게 된 청소년이 전체의 1/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Stattin과 Magnusson(199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Patterson, DeBarshe와 Ramsey(1989)의 지적처럼 비행경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 경로는 서로 달라서 같은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 즉 이른 시작자와 늦은 시작자의 두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 연령이 15세임을 보고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분기점을 15세로 보았고 그 절점을 17세로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는 절점기인 17세의 근거는 부족했지만 비행연령이 15.59세였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던 성격특질의 비교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향성($t(344)=2.223, p<.05$)과 원만성($t(344)=2.380, p<.05$)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주었다. 즉, 외향성은 일반학생이 $29.24(\pm 7.21)$ 이고 비행소년은 $27.59(\pm 5.89)$ 였으며, 원만성은 일반학생이 $27.55(\pm 5.46)$ 이고 비행소년은 $26.40(\pm 5.04)$ 였다. 그러나 신경증적 경향성, 개방성, 그리고 양심성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더욱 외향적이고 온정적이며, 자기 주장적이며, 즐거움이나 행복, 그리고 사랑 등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롭고 솔직한 경향이 있으며, 이타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 집단간에 신경증적 경향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양심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부정 감정이나 여러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심미성, 그리고 유능성이나 신중성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심성에서 유의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다음 연구에서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비행과 관련된 행동과 성격특질간의 상관

을 보면 특이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비행의 처음 시작한 나이나 입원경력, 그리고 장단기 여부 등과 성격특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의 경우 비행이 나이나 입원경력 등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한 개인의 고유한 성격특질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범죄자의 성격특질, 즉 앞서 나온 외향성과 원만성의 차이를 볼 때 적어도 이 성격특질이 범죄행동의 특이소질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범죄의 특이소질-스트레스 모델” 중의 특이소질이라 함은 신경증적 경향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양심성의 차원보다는 외향성과 원만성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이소질인 외향성과 원만성의 차원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외향성이라는 차원만 놓고 본다면 범죄행동이 외향성과 관련이 깊고, 반사회적 행동특징이 강할수록 외향성이 높다는 Eysenck(1996)의 선행연구결과와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ysenck의 성격특질차원 중 외향성이 높다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특징 및 조건화능력과 관련이 있고, Costa & McCrae의 외향성 차원은 비교적 진지하거나 또는 사교적이며 진취적 기상에 머물고 있는 개인의 성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많이 미칠수록 외향적임을 보여주었고 양심성이 높았는데, 이는 신체형 비행의 경우가 비신체형 비행보다 비행의 결과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신체형 비행을 한 청소년이 더욱 더 불안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비행청소년들 중 초범자와 재범자간에 성격특질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모든 성격차원에 있어서 이 둘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초기비행자들과 비행지속자들은 모두 최초비행에서 외향성과 원만성과 같은 성격특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의 긍정적 재평가의 문제가 동일한 수준에서 관여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재범률이 생활만족도의 지각, 의사소통의 기술, 그리고 비행친구의 수와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 더욱 높은 영향이 관여되었으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재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조건화의 능력과 학습과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재범률이 높을수록 처벌자극보다 보상자극에 민감하고 학습능력과 조건화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결과(Eysenck, 1996)를 고려해 볼 때 이를 더욱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또한 밝히고자 했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것은 긍정적 재평가뿐이었다($t(344)=2.347, p<.05$). 이밖에 직면적 대처와 계획적 문제해결, 거리두기와 자기조절, 사회적 지지추구와 책임감소, 그리고 회피/도피에 있어서는 양 집단의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비행청소년($1.263\pm.700$)이 일반청소년($1.450\pm.774$)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를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비행청소년들은 스트레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행동특징에 큰 결함이 있고, 여기에 내외적 자극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더해지면 그것이 곧 비행을 유발하는 하나의 핵심위험임이 시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이소질로는 외향성과 원만성을 그리고 스트레스로는 긍정적인 재평가의 결여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처우과정과 첫 비행나이, 그리고 입원경력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첫 비행나이와 직면적 대처간($r=-.164, p<.05$)과 책임감소($r=-.157, p<.05$)에 유의한 부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입원경력이나 처우과정 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응은 없었다. 즉, 첫 비행연령이 어릴수록 직면적 대처를 더 많이 하고 책임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의

크기가 .20보다 적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체형 비행과 비신체형 비행을 범한 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또 첫 비행청소년과 재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의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데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는 차이가 있으나, 비행청소년들간의 반응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범죄와의 상관이 부족하고 오히려 성격특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들, 특히 초범자이든 재범자이든 이들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격특질적인 측면에서는 외향성과 원만성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의 결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특이소질-스트레스 모델에서 특이소질로는 온정적이지 못하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행복, 사랑 등과 같은 정적 정서의 경험이 크게 부족한 점을,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타성이 없으며 신뢰롭지 못하고 솔직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외향성과 원만성의 성격특질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의 결여와 결합되면서 범죄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학적 재활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외향성과 원만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범죄행동을 일으키고 수감되는 초기 단계에서 성격특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행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억제, 통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에 대항하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길러주어서 비행을 예방하는 방

법이다. 대체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행위중심에서 가해지는 단속과 제재에 의한 방법이고, 간접적으로 길러주는 방법은 비행자 중심에서 이뤄지는 교화에 의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청소년비행의 예방 정책은 주로 비행행위에 대한 억제 및 단속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중심의 단속뿐만 아니라 행위자 중심의 교육과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비행청소년에 대해 장·단기 격리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재범자와 초범자간에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 차이가 없다는 점, 신체형 비행자와 비신체형 비행자간에 외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 스트레스 대처반응스타일에는 역시 차이가 없다는 점, 더 나아가서 초범자와 재범자간의 성격특질에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특히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포함한 내외적인 자극을 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학적 재활프로그램의 선행 없이는 그 효과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단기의 격리와 같은 징계 강화 방안보다는 재소자간의 대인관계적 활동을 통한 외향성과 원만성의 보안, 그리고 매사 바람직한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재평가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습관을 조성해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은 성격특질로 외향성과 원만성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반응에서 긍정적 재평가의 요인을 밝혀내었지만, 이것을 과연 여성 비행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성인범죄자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다. 즉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성차의 확인과 성인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여성 비행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를 더욱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 비행청소년들과 남성 비행청소년들간에 성격특질 및 스트레스 대처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또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성인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왜 그러한지 등에 대해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김세진(2000). 한국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p9~17.
- 김장대(1998).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20, 120~130, 146, 171~174.
- 대검찰청 (1998; 1999). 범죄백서 통계.
- 박윤창 (200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소고. 2000년 법심리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83-93.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3-64.
- 이동원(1997). 청소년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56.
- 이우영(2000). 청소년비행의 원인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통합이론의 모색.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53, 111~112.
- 이인혜 (1997). NEO-PI-R의 타당성 연구. 성격 및 개인차 연구, 6, 57-69.
-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학지사.
- Blumstein, A., & Cohen, J.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985-991.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rlando, FL.
- Costa, P. T. Jr. (1991). Clinical use of the five factor model;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393-39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iGiuseppe, R., & McInerney, J. (1991). Models of addiction: A rational-emo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ies : An International Quarterly*.
- Eysenck, H. J. (1996). Personality and Crime: Where do we stand ? Psychology, *Crime and Law*, 2, 143-152.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National Science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21, 219-239.
- Kaplan, H., Johnson, R., & Bailery, C.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the elaboration of latent structu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110-128.
- McCrae, R. R. (1991).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ssessment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3), 399-414.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s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14-628.

- Patterson, DeBarshe, &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Stattin, H., Magnusson, D.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behavior up to age 30.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4), 327-346.
- Zukerman, M., Eysenck, S., & Eysenc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n: cross-culture,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 139-149.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stress coping responses,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Chung-Song Kim †

Department of Youth Science, Kyonggi University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s, stress coping response strategies,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This study was especiall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of personality factors and stress coping responses between non-delinquents and delinquents. And through the bases of our results, this study were to find the diathesis-stress factors in delinquent adolescents. Subjects were two groups. One group was 175 male adolescents attending middle-high school in Suwon-Si. The other group was 171 male delinquent adolescents in prison in Jeonju. The NEO-FFI(Costa & McCrae, 1992) and Stress Coping Response Inventory(Folkman & Lazarus; 1980) were administered to two groups. The data analyzed by the SPSSWIN 9.0/PC+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s were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these personality

traits were important in explaining between non-delinquents and delinquents. b)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etween non-delinquents and delinquents except only positive reappraisal. So it was suggested that diathesis factors were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in personality trait, and stress factor were positive reappraisal in stress coping responses. Possible implications related to this study were discussed.

<부 록 I> NEO-Five Factor 기질검사 (NEO-FFI)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정확하게 ○ 표를 하시오. 일단 응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우거나 고치지 마시오.

1. 전혀 아니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잘 모르겠다.
4. 약간 그런 편이다. 5. 바로 그렇다.

1. 나는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 1 2 3 4 5
2.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 ----- 1 2 3 4 5
3. 몽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1 2 3 4 5
4.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점잖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 1 2 3 4 5
5. 내 소지품을 청결하고 말쑥하게 간직한다 ----- 1 2 3 4 5
6. 나는 자주 열등감을 느낀다 ----- 1 2 3 4 5
7. 나는 잘 웃는다 ----- 1 2 3 4 5
8.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 1 2 3 4 5
9. 식구나 동료들과 자주 논쟁을 벌인다 ----- 1 2 3 4 5
10.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기 위하여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 1 2 3 4 5
11.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녹초가 된다 ----- 1 2 3 4 5
12. 내가 특별히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1 2 3 4 5

13. 예술 작품이나 자연현상의 유형에 흥미가 있다 ----- 1 2 3 4 5
14. 어떤 사람은 날더러 이기적이라고 한다 ----- 1 2 3 4 5
15. 나는 규칙적이지 못하다 ----- 1 2 3 4 5
16. 우울하다거나 고독해본 적이 거의 없다 ----- 1 2 3 4 5
17.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 1 2 3 4 5
18. 학생들에게 고리타분한 훈시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2 3 4 5
19.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력하기를 원한다 ----- 1 2 3 4 5
20.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 1 2 3 4 5
21. 자주 긴장하고 신경과만이 된다 ----- 1 2 3 4 5
22. 활동적인 일이 있는 곳이 좋다 ----- 1 2 3 4 5
23. 시(詩)에 감명 받은 적이 거의 없다 ----- 1 2 3 4 5
24.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 1 2 3 4 5
25. 내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차근차근 일을 한다 ---- 1 2 3 4 5
26. 때때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 1 2 3 4 5
27.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 1 2 3 4 5

28. 새롭고 신기한 음식을 자주 먹고 싶다 ----- 1 2 3 4 5
29.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용하려 들것이다 ----- 1 2 3 4 5
30. 일에 완전히 몰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 1 2 3 4 5
31. 겁에 질리거나 불안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다 ----- 1 2 3 4 5
32. 나는 활기가 넘쳐난다 ----- 1 2 3 4 5
33. 이질적인 환경에 오는 감정이나 무드를 얼른 느끼지 못한다 ---- 1 2 3 4 5
34.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 1 2 3 4 5
35.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 1 2 3 4 5
36.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자주 화가 치민다 ----- 1 2 3 4 5
37. 나는 유쾌하고 원기가 왕성하다 ----- 1 2 3 4 5
38. 도덕적인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종교
지도자에게 조언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1 2 3 4 5
39. 나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다 ----- 1 2 3 4 5
40. 의견을 말할 때는 결과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한다 ----- 1 2 3 4 5
41. 일이 잘못되어 가면 실망을 하고 곧 포기해버리고 싶다 ----- 1 2 3 4 5
42.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 1 2 3 4 5

43. 가끔 시(詩)나 예술작품에 몰두하여 감동에 젖을 때가 있다 ----- 1 2 3 4 5
44. 나는 나의 태도에 관하여 상당히 완고하다 ----- 1 2 3 4 5
45. 때때로 내가 믿음직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 1 2 3 4 5
46. 나는 거의 슬픔에 젖거나 낙담을 하지 않는다 ----- 1 2 3 4 5
47. 내 인생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 1 2 3 4 5
48. 우주의 본질이나 인간의 조건에 대해 사색하는 것에 관심 없다 --- 1 2 3 4 5
49. 일반적으로 심사숙고한다 ----- 1 2 3 4 5
50. 일을 하는데 나는 대단히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2 3 4 5
51. 자주 무력감을 느끼고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1 2 3 4 5
52. 나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다 ----- 1 2 3 4 5
53. 나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 1 2 3 4 5
54. 어떤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유를 말한다 ----- 1 2 3 4 5
55. 나는 조직적이지 못하다 ----- 1 2 3 4 5
56. 어떤 때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 1 2 3 4 5
57.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고싶다 ----- 1 2 3 4 5
58. 나는 추상적이 사고나 이론이 재미있다 ----- 1 2 3 4 5
59.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 1 2 3 4 5
60.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다 ----- 1 2 3 4 5
- (감사합니다.)

<부록 2> 스트레스 대처반응 질문지

아래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 방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당신께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대처 방식 ○표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0,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2, 그리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3에 ○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답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의 일반적인 대처 방식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 전혀 그렇지 않다.

2 : 상당히 그렇다.

1 : 조금 그렇다.

3 :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0 1 2 3
2.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던 일만 계속 충실하게 한다 0 1 2 3
3.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 . 0 1 2 3
4. 나는 나 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 0 1 2 3
5.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0 1 2 3
6.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0 1 2 3
7.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 . . 0 1 2 3
8. 나는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 0 1 2 3
9. 나는 문제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 . . 0 1 2 3

10. 나는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0 1 2 3
11. 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12. 나는 나보다 못한 주위 사람을 생각한다 0 1 2 3
13. 나는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0 1 2 3
14.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0 1 2 3
15.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0 1 2 3
16. 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0 1 2 3
17. 나는 신앙에 의존한다 0 1 2 3
18.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 0 1 2 3
19. 나는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0 1 2 3
20. 나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잊자'고 다짐한다 0 1 2 3
21. 나는 문제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한다 0 1 2 3
22. 나는 나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 0 1 2 3

23.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24.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0 1 2 3
25. 나는 '모든 것이 다 운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26.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0 1 2 3
27. 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0 1 2 3
28.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판단을
얻고자 노력한다 0 1 2 3
29.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0 1 2 3
30. 나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0 1 2 3
31. 나는 문제 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32. 나는 기회를 엿보며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한다 0 1 2 3
33.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 0 1 2 3
34. 나는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0 1 2 3
35. 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0 1 2 3
36. 나는 문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0 1 2 3
37.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0 1 2 3
38. 나는 문제의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0 1 2 3

39. 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다 0 1 2 3
40.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의미를 얻으려 한다 0 1 2 3
41.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0 1 2 3
42. 나는 따뜻하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43. 나는 문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 버린다 0 1 2 3
44. 나는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평소에 하던대로 한다 0 1 2 3
45. 나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0 1 2 3
46.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0 1 2 3
47. 나는 '이것도 내 팔자려니'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48. 나는 나 스스로의 잘못을 채찍질한다 0 1 2 3
49. 나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50.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0 1 2 3